

홍정부 핀셋 행정·의정에 광주·전남 정·관·재계 ‘초긴장’

노동자 추락사고, 소비쿠폰 색깔 차별, 인권유린 콕 집어 공개 질타 정부·지자체·경찰 등 즉각 대응...민주당, 지방의원 일탈 신속 조치 “죽비 호남에 회초리” “지방선거 시험대” “치우침·내로남불 없어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과 상식, 속도를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핀셋 행·의정’에 나서면서 광주·전남 정·관·재계가 초긴장 모드다.

내란 척결이 새 정부 핵심과제인 가운데 또 다른 중대 실패대가 될 지방선거를 채 1년도 남겨 두지 않은 시점이어서 국가 전반에 걸쳐 법도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당·정 메시지에 지역 사회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27일 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17m 추락사고, 23일 광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색깔 논란, 24일 나주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사건을 연이어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추락사고에 대해선 “돈보다 생명”, 소비쿠폰 차별에 대해선 “행정 편의와 인권 감수성 부족”,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에 대

해선 “인권유린”에 방점을 찍으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행정은 속도”라며 신속성도 강조했다.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에는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호남에) 회초리를 들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성남시장, 경기지사, 당 대표, 대권 후보 시절 온갖 현안을 직접 살펴보는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을 보여왔던 만큼 정권 초 가장 잡가는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핀셋 행정’에 현장은 당황하면서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조사 중이다.

광주시는 분홍색(일반), 연두색(차상위+한부모), 남색(기초생활수급자) 등 3종으로 제작했던 소비쿠폰을 밤샘 작업을 통해

분홍색으로 통일했고, 시장은 거둬들여 사과했다. 디자인 협의를 한 행정안전부의 공동 책임론도 제기되며 공직 전반의 자성론도 일었다.

이주노동자 괴롭힘과 관련해선 경찰이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고용부는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전남지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찾아 위로했고, 피해자는 새 일터를 찾았다. 공직자들은 휴가도, 주말도 반납한 채 호우 복구와 피해조사에 투입됐다. 폭염 대응에도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한 공직자는 “소년공·지자체장 출신 대통령이어선지 안전, 인권, 공직자 자세를 우선시 하는 것 같다”며 “기장 잡기로도 보이지 않지만,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는 국룰 메시지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도 일탈 행위를 신속히 일벌



백계하는 등 뒷발 관리에 여념이 없다. 갑질과 만취 난투극으로 추태를 부린 목포·여수 시의원 3명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고, 예결특위 감투 논쟁 잡음에 휩싸인 광주시의회 자당 의원들에 대해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호남은 살아 있는 죽비(竹筴)”라며 기득권 척결과 함께 강력한 혁신을 주문한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4월,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일격을

받은 조국혁신당의 존재감도 민주당 내부 혁신에 기름을 부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소속 의원 12명이 ‘명예군수’가 되겠다”고 밝힌 혁신당은 최근 담양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고, 중앙당 차원의 수혜 복구 지원에 나서는 한편 민주당을 향해선 “공천부터 윤리까지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내년 지방선거는 중요 시험대”

라며 “다자구도 속에 공천경쟁도 치열할 수 없어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선 뒷발에서부터 정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과 상식, 속도감 있는 행정이 중앙, 지방 가리지 않고 적용되고 과거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던 내로남불 논란이 사라질 때 ‘모두의 정부’ ‘모두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鄭·朴 ‘선명성 경쟁’ 계속... “협치보다 내란척결”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정청래 “사람 죽이려고 한 세력의 사과가 먼저” 박찬대 “김건희 짓값 치를때까지 특검 안 멈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는 26일 TV토론을 하루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향한 결집 메시지를 이어갔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총을 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를 수거하려고 했던 내란세력과 협치가 가능할까”라고 했다.

그는 “협치보다 내란척결이 먼저”라며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의 진정한 사과가 먼저다. 이런 자들과 함부로 협치 운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건희 일당 모두가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특검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과 특검법 재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자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밀항, 해외도피, 잠적을 볼

사하며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 김건희는 ‘황제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루에 한 혐의만 조사, 조사하고 나면 3-4일 휴식, 오후 6시까지만. 이게 피의자 조사인가”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VIP 황제 조사 메뉴판’을 들이민 피의자가 또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거기다 윤석열과 같은 날 재판은 ‘몸이 아프다’며 또 불출석(했다)”며 “국정은 함께 맡아먹고, 법정은 각자 피하는 이 부부, 법질서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특검법에 기한이 있어 그래서 버티지만 하면 된다? 대단한 착각이다. 심각한 오판”이라며 “지금처럼 연장하고 숨어 있다면 우리는 특검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왼쪽),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내년 호남권 지방선거 경선, 선거공영제 시행” “노컷공천”은 개혁 아닌 구태정치 부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당내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는 검찰·사법·언론 등 3개 개혁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 시절 추진했던 혁신공천 정신을 계승해 경선 선거공영제 도입 등 ‘호남 공천혁명’ 공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경선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으로, 청년과 정치 신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호남공천혁명 공약에는 ▲컷오프 제도 혁신 ▲호남지역 컷오프 통과자에 대한 100% 경선 실시 ▲지방선거 공영제 호남 우선 시행 ▲당대표 직속 ‘호남공천특위’ 구성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청년·여성 비율 확대 등 5대 개혁안이 담겼다.

박 의원은 “컷오프 제도는 당원들과 함께 개편하고,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는 100% 당선 경선을 통해 경쟁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비용은 당이 지원해 받침”이라고 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5일 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에서 “당내 선거에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내년 호남 지역에서 우선 시행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다.

그는 정청래 후보가 “역울한 컷오프가 없는 노컷 당대표가 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해 “무자격자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공천 개혁이 아닌 구태정치의 부활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컷오프 혁신안은 당 기여도·충성도 등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당대표 직속 ‘호남공천특위’를 구성하고,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청년·여성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당원이 진짜 주인인 정당’을 호남에서부터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했던 혁신공천의 정신을 계승해 호남이 다시 ‘혁신의 고두보’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며 “호남은 민주당의 기둥이자 개혁 상징인 만큼 호남공천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삶을 지켜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